

17년 소송다툼이 「鑑定의혹」의 발단

大田유지 2명 맞고 소서 비롯 政治人이 개입되자 뇌물소동

재판진행중 곳곳에 허위감정·提報

노태우측 변호사간 쟁점

노태우측 변호사간 쟁점은 대법원 1부(11인)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17년 소송다툼이 「鑑定의혹」의 발단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17일 대법관 11인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17년 소송다툼이 「鑑定의혹」의 발단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17일 대법관 11인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17년 소송다툼이 「鑑定의혹」의 발단으로 이어졌다.

법원 등후대民事소송 증거능력 인정

巨額 재판판 金品유혹 말성

거의 印章業 출신 자적·단속법규 全無

거의 印章業 출신 자적·단속법규 全無. 대법원은 17일 대법관 11인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17년 소송다툼이 「鑑定의혹」의 발단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17일 대법관 11인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17년 소송다툼이 「鑑定의혹」의 발단으로 이어졌다.

“김실장에 50만원 줬다”

사실감정원 전 원장 진술 출장사례비 명목 송금 계좌 추적...김씨 오늘 소환

국과수감정 증거 불인정은 잘못
검찰, 법원판결 반박 항소 밝혀



국과수감정 증거 불인정은 잘못
검찰, 법원판결 반박 항소 밝혀

“국과수감정 증거 불인정은 잘못” 검찰, 법원판결 반박 항소 밝혀

사실감정원 전 원장 진술 출장사례비 명목 송금 계좌 추적...김씨 오늘 소환. 검찰, 법원판결 반박 항소 밝혀. 국과수감정 증거 불인정은 잘못. 검찰, 법원판결 반박 항소 밝혀.

민들레처럼
노동의 힘
노동의 힘

2월 13일 한겨레신문

경향 2/B

제14315호 (제3호부판권기(1992년 2월 13일))

「國科搜의혹」 벗기나 된다

합법 합계 대역수사팀 구성 인정

합법 합계 대역수사팀 구성 인정... 국사보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사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사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서대필 감정에도 신빙성의문 진실규명보다 파문추소 우려도

유서대필 감정에 신빙성의문... 진실규명보다 파문추소 우려도. 유서대필 감정에 신빙성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실규명보다 파문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실장등 5명 작년 4천건 감정

실장등 5명 작년 4천건 감정... 국사보 문서분실실. 국사보 문서분실실. 실장등 5명 작년 4천건 감정. 국사보 문서분실실.

개인 이해다툼에 경각심

국과수 기정리정(국사보) 수반

賂物여부 수표入金 추적

國科搜의혹사건 증거수집뒤 金실장 내일소환



신계(1992년 2월 13일)에 대한 국사보의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국사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수고비 35만원 진술 조사 金 씨 大田진설업자 처벌

수고비 35만원 진술 조사... 金 씨 大田진설업자 처벌. 수고비 35만원 진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金 씨 大田진설업자 처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정不認定」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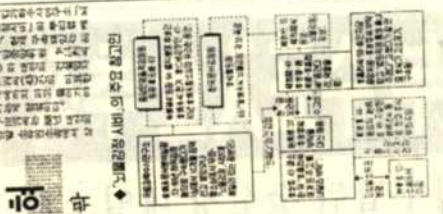
國科搜·진찰·재판결과에 不服. 「감정不認定」 시비. 국사보·진찰·재판결과에 불복. 「감정不認定」 시비.



第一學院

대입종합반 (文科·理科·藝能) 전형: 2월 18일. 第一學院. 대입종합반 (文科·理科·藝能) 전형: 2월 18일.

1992년 2월 13일 목요일 41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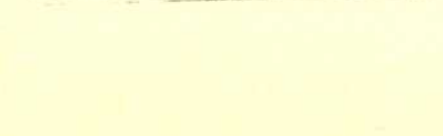
「시험지 도난」 趙世東생도 얽혀

「허위감정」 제보 안락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발표한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생 趙世東은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科教감정 결과 '관절싸고 시비'

국科教감정 결과 '관절싸고 시비'... 서울대생 趙世東은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現숯모관 확인서가 빈칸

감정결과 싸고 틀린 증거

現숯모관 확인서가 빈칸... 서울대생 趙世東은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판에 진실자 범수포 작용

제판에 진실자 범수포 작용... 서울대생 趙世東은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두개의 도장 배후리 탐라... 제판부서 적된 시기 誤判... 서울대생 趙世東은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줬다·안줬다" 뇌물攻防

국科教「허위감정」 수사 확대



◇「발렌타인」 추방... 서울 YMCA 회원 400여명은 12일 오후 영등포구 영등동에서 「발렌타인 데이」를 추방위원회에 확대 전략으로 촉구하는 상소를 추방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장에 35만원入金

前사실감정원인

金실장계좌추적... 금명소환

제판수사 혼란... 法院, 재심청구 속출 우려

서울지검은 12일 서울대생 趙世東(21)이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科教「법원서 誤判」반박

국科教「법원서 誤判」반박... 서울대생 趙世東은 '92학년도 2학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도난 사건'에 얽혀 있는 서울대생 趙世東(21)이 '허위감정'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2.13
조선일보

작년 전문위조단 사건 검찰서 내사종결 지시

서울경찰청이 지난해말부터 이번 국과수의 허위감정 의혹의 발단이 된 지문·인감 전문위조단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적으로 벌이다가 이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검찰의 내사종결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검찰의 내사종결 지시는 경찰의 지문·인감위조단 수사가 진전될 경우 이 사건과 맞물려 있을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했던 변호사법 위반사건이 뒤집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지문·인감위조단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고소된 관련경찰관 5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룬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적당히

타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익명의 부서를 바탕으로 지문·인감 전문위조단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7일 서울지검으로부터 관련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지시를 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세용씨를 우두머리로 하는 전문위조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씨와 끈이 닿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쇄소 등을 추적 중이었다.

검찰은 내사종결 지시를 하기 전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경찰청이 전문위조단 수사의 참고인인 이세용씨의 하수인인 조남근(37)씨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

를 했다는 조씨의 고소에 따라 관련경찰관 5명을 연행했었다.

당시 검찰은 이세용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이상열씨를 구속했으며 조씨는 이상열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검찰의 중요한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서울지검 관계자는 "당시 서울경찰청이 전문위조단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지휘공신을 올려 내사종결 지시를 내렸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로부터 20여일 만인 지난 7일 경찰 관계자가 또다시 찾아와 김형영 실장도 내사했으나 혐의가 없어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김씨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1992년 2월 14일 제8226호

“허위鑑定”이나 “폭로攻防”이나

국과수 노림의 특수사 3갈래 방향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지난해 말부터 이번 국과수의 허위감정 의혹의 발단이 된 지문·인감 전문위조단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적으로 벌이다가 이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검찰의 내사종결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검찰의 내사종결 지시는 경찰의 지문·인감위조단 수사가 진전될 경우 이 사건과 맞물려 있을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했던 변호사법 위반사건이 뒤집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지문·인감위조단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고소된 관련경찰관 5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룬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적당히 타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익명의 부서를 바탕으로 지문·인감 전문위조단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7일 서울지검으로부터 관련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지시를 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세용씨를 우두머리로 하는 전문위조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씨와 끈이 닿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쇄소 등을 추적 중이었다.

검찰은 내사종결 지시를 하기 전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경찰청이 전문위조단 수사의 참고인인 이세용씨의 하수인인 조남근(37)씨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씨의 고소에 따라 관련경찰관 5명을 연행했었다.

당시 검찰은 이세용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이상열씨를 구속했으며 조씨는 이상열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검찰의 중요한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서울지검 관계자는 "당시 서울경찰청이 전문위조단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지휘공신을 올려 내사종결 지시를 내렸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로부터 20여일 만인 지난 7일 경찰 관계자가 또다시 찾아와 김형영 실장도 내사했으나 혐의가 없어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김씨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①李世容씨가 뇌물주고 허위감정 부탁
- ②李昌烈씨 측근의 허위제보 반격작전
- ③國科捜속일만큼 위조 완벽했음수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지난해 말부터 이번 국과수의 허위감정 의혹의 발단이 된 지문·인감 전문위조단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적으로 벌이다가 이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검찰의 내사종결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검찰의 내사종결 지시는 경찰의 지문·인감위조단 수사가 진전될 경우 이 사건과 맞물려 있을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했던 변호사법 위반사건이 뒤집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지문·인감위조단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고소된 관련경찰관 5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룬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적당히 타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익명의 부서를 바탕으로 지문·인감 전문위조단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7일 서울지검으로부터 관련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지시를 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세용씨를 우두머리로 하는 전문위조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씨와 끈이 닿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쇄소 등을 추적 중이었다.

검찰은 내사종결 지시를 하기 전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경찰청이 전문위조단 수사의 참고인인 이세용씨의 하수인인 조남근(37)씨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씨의 고소에 따라 관련경찰관 5명을 연행했었다.

당시 검찰은 이세용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이상열씨를 구속했으며 조씨는 이상열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검찰의 중요한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서울지검 관계자는 "당시 서울경찰청이 전문위조단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지휘공신을 올려 내사종결 지시를 내렸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로부터 20여일 만인 지난 7일 경찰 관계자가 또다시 찾아와 김형영 실장도 내사했으나 혐의가 없어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김씨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본인·가족명의 은행계좌 10여개 확인 「國科搜」金실장 내일 소환



○병원장들이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건설업자李世容씨 함께 감정인李씨도 金品제공심증

【서울 14일 특파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교통사망 줄이자
사고현황 <12월09시~13일09시>

발생	사망	부상
12-13일	557	25 682
서울	120	6 128
인천·경기	109	8 158
부산·경남	85	5 107
대구·경북	90	2 103
전남·전북	45	4 80
충남·충북	61	- 82
강원·제주	27	- 34
의·축도	8	9 6
미·합계	20	1 19
192누계	22,220	1,134 23,773

<경찰청 교통지도국 집계>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金실장계좌 千여萬원入金 확인

國科搜 사건 일가족 통장 14개 찾아내



○서울시가 첫 시행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이 14일 강남구 소재의 한 시험장에서 5백43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 (순경 기자)

돈출처캐기 搜查力 집중 다민족원 金品수수여부도 조사

【서울 14일 특파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서울지방법원 1부 재판장인 김성환 판사는 13일 서울안국병원에서 환급금포착계 제정결과 인일행사 정산의 실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순경 기자)

계좌추적 관련자 전원 확대

허위감정 김실장 계좌 여러개 확인 입출금 내역 '뇌물관계' 조사

속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분석 허위감정 의혹사건에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씨와 김씨 가족의 은행 계좌 여러 개를 확인하고 입출금 거래가 허위감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김형영은 이날 서울신민은행 남대문지점에서 90년 8월 중앙인명필적감정원 전 회장 신찬식(67)씨가 김씨에게 송금한 35만원이 입금된 김씨의 통장계좌를 확인했다.

신씨는 김형영에서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그 중 35만원을 차비로 김씨에게 송금

했다"고 말했다.

김형영은 또 국민은행 북악지점에서 김씨 예금계좌를, 세일은행 한 지점에서 김씨의 부인 신아무개(46)씨의 예금계좌를 확인했고 이밖에 별개의 은행에서 김씨 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김씨 가족의 예금계좌를 23개 은행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김형영은 발견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 김형영수원원의 가 드러나는 대로 김씨를 불러들이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의 계좌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 수사는 한기를 띠게 됐고 김형영은 빠르면 14일 김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영은 또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사실감정인의 은행 계좌 추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형영은 대전에서 진석임을 하고 있는 이세윤(41)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소송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중 3건의 문서감정을 김씨에게 유의하게 관련된 점을 중시해 이씨와 김씨의 관계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형영은 출국수 검지시킨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김씨가 소환되는 대로 이씨도 불러 이번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형영은 이같은 방점조사를 벌인 사실감정원 4명을 이날 오후 일단 귀가시켰고 14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들 사실감정원은 모두 "국과수 직원에게 돈을 주고 허위감정을 부당한 사실이 없다"며 심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번 사건을 《문화방송》에 보도했던 조병길(46)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에 검찰에 나와 사실감정인들에게 허위감정 관련 경위 등을 설명하고 13일 새벽 귀가했다.



주한미군 철수조치의 하나로 주한미 제802공병대대가 13일 경기도 평택군 함포리까지 격납고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공학감정원이 끝난 뒤 한-미 사병이 한데 어울려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택=김선규 기자)

주한미군 공병대 철수
주한미군의 제802공병대대가 13일 연-위니 법안에 의한 1단계 미군감축계획(90-92년)에 따라 본격적으로 철수했다.

1단계 주한미군 감축이 시작된 이후 대대규모 부대가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02공병대대는 지난 50년 7월 한국에 배치돼 그동안 군용 비행장 건설과 보수작업을 해왔다.

한편 이 부대에 배속됐던 제38한국노무연도 802공병대와 함께 해체됐으며, 노무연 소속의 한국인 노동자 1백35명은 다른 부대에 배치됐다.

이창열씨사건 재판부 수사기록 직접 서증

국과수 직원 거짓감정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전 전직감정원인 이창열(5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4차공판이 13일 오후 4시 서울형사지법 배회기판사 단속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이씨가 배추었다는 혐의보관증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경

2.14 한겨레

개인원한다툼이 國科搜까지 불뚝

작년 警察 文書위조단조사로 발단 金炯永실장 수사오르자 '유야무야'

국과수 직원 거짓감정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전 전직감정원인 이창열(5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4차공판이 13일 오후 4시 서울형사지법 배회기판사 단속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이씨가 배추었다는 혐의보관증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경

정부는 "국과수 직원 거짓감정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전 전직감정원인 이창열(5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4차공판이 13일 오후 4시 서울형사지법 배회기판사 단속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이씨가 배추었다는 혐의보관증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경

2.14 세계일보

한겨레신문사

국과수 직원 거짓감정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전 전직감정원인 이창열(5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4차공판이 13일 오후 4시 서울형사지법 배회기판사 단속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이씨가 배추었다는 혐의보관증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경

“國科搜에 쓸 돈 준비하라”

MBC 「하위간접」 해체테이프 재구성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 재구성 프로그램이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金炯永이 불러내 분위기 만들자 사설감정인 연구소 고리 드러나

파문 확산되자 진출 반복하기도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 재구성 프로그램이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용어사전
현대사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 재구성 프로그램이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순정정관련 비평가자 정경익에게

정경 비평가의 반론과 정경익의 답변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 재구성 프로그램이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당한證據 확보된 김형영의 반론이 마무리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 재구성 프로그램이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한 「하위간접」 해체테이프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14

(第3報館址址) 報日界

第967號

金실장-夫人계좌 16개 추적

國科搜검정 의혹, 입출금내역 정밀조사



金실장의 아내 김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 (가인 제공)

金실장, 사건발단 전설업자와 친밀 告訴·진정訟事와 有關係

【가인 기자】 김실장은 이번 뇌물사건 발단이 된 건담건설사(이하 건담)와 전설업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실장은 건담건설사와 전설업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건담건설사의 자금조달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李世承씨, 나니과해자 결핵 주장

【가인 기자】 나니과해자 결핵은 나니과해자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폐에 감염을 일으킨다. 김실장 가족 중 나니과해자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실장은 건담건설사와 전설업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건담건설사의 자금조달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실장은 건담건설사와 전설업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실장의 아내 김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되었다. 김씨는 이번 뇌물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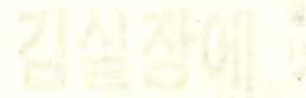
90년 1천만원 인출 확인

金실장 아들 구좌서-경위 추적

2/4 중앙일보

教會 신축자금 관리했다 인장등 69개複製도 밝혀

【가인 기자】 김실장의 아들 김현우(41)씨가 1990년 1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현우씨는 교회 신축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현우씨가 69개의 인장과 등장을 복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실장에 대한 보도...

김현우씨는 교회 신축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현우씨가 69개의 인장과 등장을 복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례별로 본 '감정시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감정인따라 결과 제각기

국과수등 국내기관 못미쳐 외국외도
김실장 '유서대필사건' 등서 오류 노출
'국가기관 맹신' 법원·검찰 관행드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서감정 증거채택 신중을"

법조계 국과수감정 유죄근거 관례 이의제기
감정인 주관적 판단커 오판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실장에 거액입금 확인

국과수 사건 아들계좌에 1천만·1백만원 수차례

가족통장 14개 찾아내
국과수 측은 "김실장의 아들 김대우(27)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김실장의 아들 김대우(27)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김실장의 아들 김대우(27)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김실장의 아들 김대우(27)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감정시비 제도에 대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감정시비 제도는 국민에게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알리고, 국민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15 한겨레 신문

國科搜 金실장 拘束방침

위협장사건 收賂확인 내일 피의자로 소환



위협장사건 피의자 김실장(右)과 대위 박대우(左)가 서울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추방장사 오진만(오진만) 발원지사
 위협장사건 피의자 김실장(右)과 대위 박대우(左)가 서울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실장은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우는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위협장사건 피의자 김실장(右)과 대위 박대우(左)가 서울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실장은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우는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2. 15 조선일보

118 김 실장 受賂시증

아들계좌로 3천만원 入出金

國科搜 의혹사건
 위협장사건 피의자 김실장(右)과 대위 박대우(左)가 서울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실장은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우는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영 보물포 받았을 가
 김실장은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우는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실장은 이틀 귀가
 시켰던 申씨를 사형선고한
 4명을 다시 불러 계속 조
 사했다.

김실장은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우는 위협장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국립과학연구소

14일 서울 선문대(13) 법원에서는 국립과학연구소(이하 국립연구소)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대 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립연구소가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숯불장 사법처리 조기鎮火 노릴듯

國社被訴사 1 週前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연구소가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진화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연구소는 화재 사고 발생 후 1주일 전인 14일 서울 선문대(13) 법원에서는 국립과학연구소(이하 국립연구소)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요인정」 못함판권 「국정법회복」 못함

국립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측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립연구소가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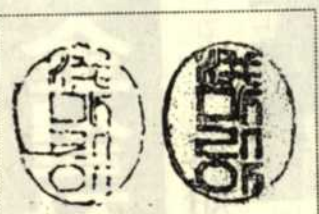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립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측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립연구소가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국립연구소는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판계도 「위조인장」 논란

“가짜印紙사용” 여부 잇단 訴訟 2/15



위조인장과 본인장의 차이. 위조인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인장은 실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私設감정원 “印影이상” 판정 國科搜선 “똑같다” 著者패소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조인장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설감정원과 국립과학연구소의 판정 결과를 비교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국립연구소는 위조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했지만, 사설감정원은 위조인장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국립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측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립연구소가 서울대 측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의 특허권도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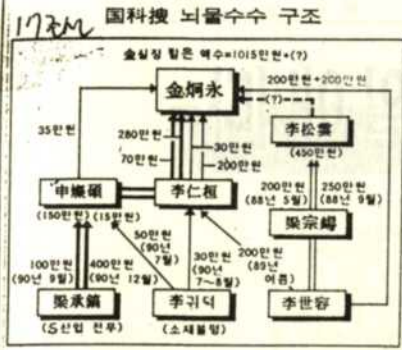
국립과학연구소

국립과학연구소는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위조인장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설감정원과 국립과학연구소의 판정 결과를 비교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감정영문구조적비리

· 國科搜 비리 사건

정영문은 1972년 11월 15일(7)에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구조적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高卒후 인상점 정영... 77년 채용과 수필비리간 金炳永의 부가

정영문은 1972년 11월 15일(7)에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구조적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영문은 1972년 11월 15일(7)에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구조적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915R KM
第21901号

영어발행저도 再審 어렵어

「國科搜사태」 재판도 어렵어 再審 미결까

정영문은 1972년 11월 15일(7)에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구조적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不信 "이유만으로 판결불복 안돼" 향후 재판판 증거 채택 논란 일파

정영문은 1972년 11월 15일(7)에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구조적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영문은 1972년 11월 15일(7)에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구조적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국문구조적비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 원인을 크게 '구조적'과 '기능적'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문구조적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4호

'백한 검찰수사' 따라만 같일 아니다

이 민실위의 의견이다.

허위감정·조선 택시원포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수사를 받고 있다. 사립법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국가공신력의 주요보로로 권력의 절대성을 인정받은 국과수가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실시한 사실은 부정감정의혹은 그 의혹제기만으로도 국민과 관련 정부당국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하다.

중요한 권력형 뇌리가 싫어지 않았던데 최근들어서는 대학입시 문제까지 도난되는 최대의 사건이 터진 화중에서 이번엔 국과수의 거짓감정의혹이 제기된 것을 놓고 국가권력의 누수현상의 일단으로, 나아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도덕성 상실로까지 '백화점'은 시작은 그렇게 대중적 정복력을 얻고 있는게 사실이다.

민실위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비평'을 지양하고 언론이 어떤 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의를 하였다.

즉 절대적 공신력을 부여받은 국가공공기관의 부정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문의 크기와 그에 반해 국가기관에 대한 언론수사의 '원격'을 견제할 때 언론의 책임이 그 어느 사안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원이 돈을 받고 각종 재판관련 문서, 인정을 허위로 감정해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제기는 9일 일요일 저녁 9시 MBC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쬐었다.

수감자의 절대적 증거능력을 신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그 증거능력에 개인적 편견을 끼치는 데까지 '백한 민실'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이는 보다 공정한 재판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실위는 MBC 보도 이후 몇몇 신문들 제외한 상당수 신문이 이 사건 보도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김철이 수사에 나서야 크게 보도하기 시작한 것에 주목했다. 국과수의 허위감정의혹은 국가 공신력을 담보해온 국가공공기관의 부정문제로, 사실도 드러날 경우 각종 재판은 물론 사회일반과 국가기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점에서 언론은 이를 독자적으로 취재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검찰



집요한 추적보도 절실한 사안 타사특종에 인색한 구습 여전

제14호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이 사실감정인 및 문서위조단과 결탁하여 허위감정을 해왔다고 한다.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이번 사건의 진상도 흐지부지 오리무중의 안개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며 뒤늦게 발견된 범인의 일각이라는 선입견을 지울 수 없다.

"문: 상식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과연 원래의 책자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하여는 책자의 총면수, 책자의 제본 방법, 떨어져 나간 부분의 면수 및 남아 있는 흔적의 면수, 위치 등을 검사해야 하지요." "답: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오늘이야기 조 용 환 (연맹 고문번호사)

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요." "답: 예, 그것은 감정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거나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런 필적 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문제는 모두 증인의 머리속에서 보고 계산하고 현재 또한 증인의 머리속에만 기억되어 있나요." "답: 그 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증언만을 듣고도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런 감정을 하게 하였고 필법은 오직 위 감정만이 법원만 하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선고하는 동안 배석관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

'허위감정'은 예견된 일

비슷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오직 증인에 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여 증인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 "답: 예." "문: 그런데 증인이 한 감정사항은...본래의 감정외의 사항과 다르게 감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각각 이동여부를 감정하려면 복잡하므로 검사에게 전화해 '언어 할 목적물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여...그렇게 감정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전민련업무 일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에게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답: 검사가 얘기하였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떨어져 나간 면수가) 4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나요." "답: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습니다." "문: 검찰에서 의뢰할 때 추가자료가 책자글씨와 동일한지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답: 예." "이렇게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감정한 그는 김기설 씨의 필적과 김기훈 씨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문: 그런데 증인은 필적 감정 모두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에 관한 감정기준 근거자료를 증인이 감정할 감정서에 첨부하는 바도 없고 증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

다. 재판은, 그리고 감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 지혜와 상식, 예지를 모두 동원하여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명제가 무너지면 재판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는 아무데에도 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감정을 하게 하고 그 백한 허위의 감정을 증거로 끌어대 잘못된 판결을 하는 상황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만 양심을 지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허위감정은 우리의 뒤를 떠난 사법의 토양에서 자라난 하나의 독버섯에 불과하다. 뿜을 심어야 콩이 나지, 거짓의 씨앗을 뿌려 왔는데 진실의 열매가 맺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제1158호 (1988년 12월 24일) (월요일)

한겨레신문

김실장 내일 소환

국과수 허위감정 대전서 1백만원 이상 송금 확인 다음주 초 구속 예상

뇌물혐의 이세용씨 밤샘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대전의 허위감정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4일 국과수 본실장인 김실장(53)씨가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허위감정 사건에 대한 서울지검은 14일 국과수 본실장인 김실장(53)씨가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못말렸다” 민가침 등 100여 개 시민단체 회원 1백여 명이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국과수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규명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규 기자)

“문서감정 증거채택 신중을”

법조계 국과수감정 유죄근거 관례 이의제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대전의 허위감정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4일 국과수 본실장인 김실장(53)씨가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1159호 (4판) (1988년 12월 24일) (월요일)

한겨레신문

초저녁에 편안함을 느낀 그이
땀방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
젊음의 새웃을 잡아잡자 — BANG BANG

서울: 송인호/방송: 권영-인제민: 강영진/편집: 김민호/발행: 한겨레신문사 (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116-25) The Han-Georeh Shinmun (4) (02)

김실장등 4~5명 구속방침

국과수 거짓감정 사건 검찰, 뇌물수수 확인...오늘 영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대전의 허위감정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4일 이 연구소 본실장인 김실장(53)씨가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실장은 서울에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감정」 열쇠권 이세용씨 주변인물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직원인 이세용(47)씨의 뇌물수수 사건이 15일 검찰에 의해 뇌물사건으로 진위 판명이 났다. 이 사건은 79년 12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는 검찰에 "거짓감정"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부동산거래로 상당한 재산축적

각종 송사관련 조병길, 이창열씨와 얽혀

이세용씨는 부동산거래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종 송사관련 조병길, 이창열씨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세용씨는 뇌물수수를 하면서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국과수사태」 왜 조급한가

국과수사태가 왜 조급한가?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을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을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부동산거래로 상당한 재산축적

각종 송사관련 조병길, 이창열씨와 얽혀

이세용씨는 부동산거래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종 송사관련 조병길, 이창열씨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세용씨는 뇌물수수를 하면서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치문제화 우려 '불끄기 수사'

허위감정 진위보다 뇌물차원서 '해결' 예상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치문제화 우려 '불끄기 수사'

허위감정 진위보다 뇌물차원서 '해결' 예상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치문제화 우려 '불끄기 수사'

허위감정 진위보다 뇌물차원서 '해결' 예상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치문제화 우려 '불끄기 수사'

허위감정 진위보다 뇌물차원서 '해결' 예상

李世容씨 私設감정인제 4명 오늘 신변처리

국과수사태 관련 4명 오늘 신변처리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치문제화 우려 '불끄기 수사'

허위감정 진위보다 뇌물차원서 '해결' 예상

80년 「허위감정」 구속... 2년만에 復職

80년 「허위감정」 구속... 2년만에 復職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세용씨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세용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치문제화 우려 '불끄기 수사'

허위감정 진위보다 뇌물차원서 '해결' 예상

[6]

日曜日

1992年2月16日

東亞日報

흔들리는 國科搜 공신력

부정행위 의혹이 계속되는 국과공[국립과학정보센터]의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 국과공은 과학정보의 수집, 가공, 배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과학자들이 국과공의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국과공의 업무 처리가 느리고,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과공 측은 이에 대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있었지만, 정보의 정확성은 보장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국과공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 회

수사끝나도 큰 후유증

成墉乘군 아버지의恨

이제 30살이 된 최성우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는 1985년 12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삼성동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최성우 군은 10살이었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최성우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자신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본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자신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본다.

사 회

「서울신문」은 1992년 2월 16일(일)에 「수사끝나도 큰 후유증」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1985년 12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삼성동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성우 군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왔던 최성우 군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최성우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자신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본다.

週間 週刊

週間 週刊

學父母“남의일 아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고,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자녀의 생활 방식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녀의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좋지만,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 화 보 西紀 1992年 2月 16日 日曜日 (陰曆 壬申年 1月 13日 壬戌)

金실장 卅만원 受賂 확인

國科搜 卅만원 受賂 卅만원 受賂 卅만원 受賂

국과공의 공무원 김성우(45)가 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성우는 국과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최근 몇몇 과학자들이 국과공의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성우는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여 업무 처리를 우선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성우는 뇌물을 수수한 후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고, 과학자들은 김성우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국과공 측은 김성우의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김성우의 행위는 국과공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李世容씨 등 5명도 함께 허위감정 「관련이 못발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허위 감정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성우(45) 외에도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김성우는 국과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최근 몇몇 과학자들이 국과공의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성우는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여 업무 처리를 우선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성우는 뇌물을 수수한 후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고, 과학자들은 김성우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국과공 측은 김성우의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김성우의 행위는 국과공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 사회 부조리 국민 불복증 유발

공직 사회의 부조리는 국민들의 불복을 유발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권력 남용, 비리, 부패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의 불복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불복은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공직 사회의 부조리를 용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불복을 억압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직 사회의 부조리를 용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7 한자

국科教 金실장 연행 철야조사

「허위감정」

千3百만원 受賂 확인 돈준 감정인등 6명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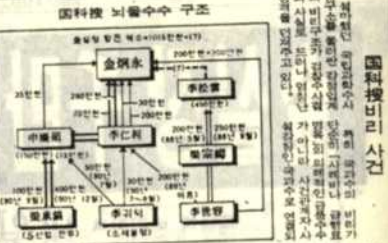


16일 상모 김형영에 인형된 김희재 國科搜 金실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국과수 1부 1차장인 김희재(59) 연구관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형영(57) 연구관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희재는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김형영을 연행했다. 김형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희재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희재를 연행했다. 김희재는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김형영을 연행했다. 김형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희재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희재를 연행했다.

국科教 비리 사건

사실감정인들이 연결 고리 「청탁료」일정비율 배고전담



국과수 1부 1차장인 김희재(59) 연구관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형영(57) 연구관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희재는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김형영을 연행했다. 김형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희재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희재를 연행했다. 김희재는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김형영을 연행했다. 김형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희재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희재를 연행했다.

국科教 金실장 밤샘조사

「허위감정」 수사 오늘 구속... 감정인등 6명 수감



16일 아침 김형영 사를 불어내고 있다. 김희재는 김형영의 「허위감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형영을 구속하고, 김희재, 이정민, 김종현 등 6명도 수감했다. 김희재는 김형영의 「허위감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형영을 구속하고, 김희재, 이정민, 김종현 등 6명도 수감했다. 김희재는 김형영의 「허위감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형영을 구속하고, 김희재, 이정민, 김종현 등 6명도 수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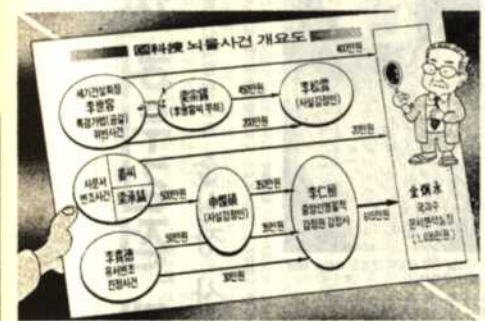
西紀 1992年 2月 17日 月曜日 (陰曆 壬申 1月 14日 癸亥)

第 21803 号

「뇌물藥效-허위감정」 연결 안나타나

개입된 사전 어떻게 감정됐나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57)은 17일 열린 허위 감정 사건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은 뇌물과 허위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뇌물과 허위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李世容씨 無罪 뒤 2백만원 쥐 두차례나 돈받고도 불리한鑑定 유산분쟁은 鑑定불능 내 불기소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57)은 17일 열린 허위 감정 사건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은 뇌물과 허위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서代筆로 耳目 文書감정 1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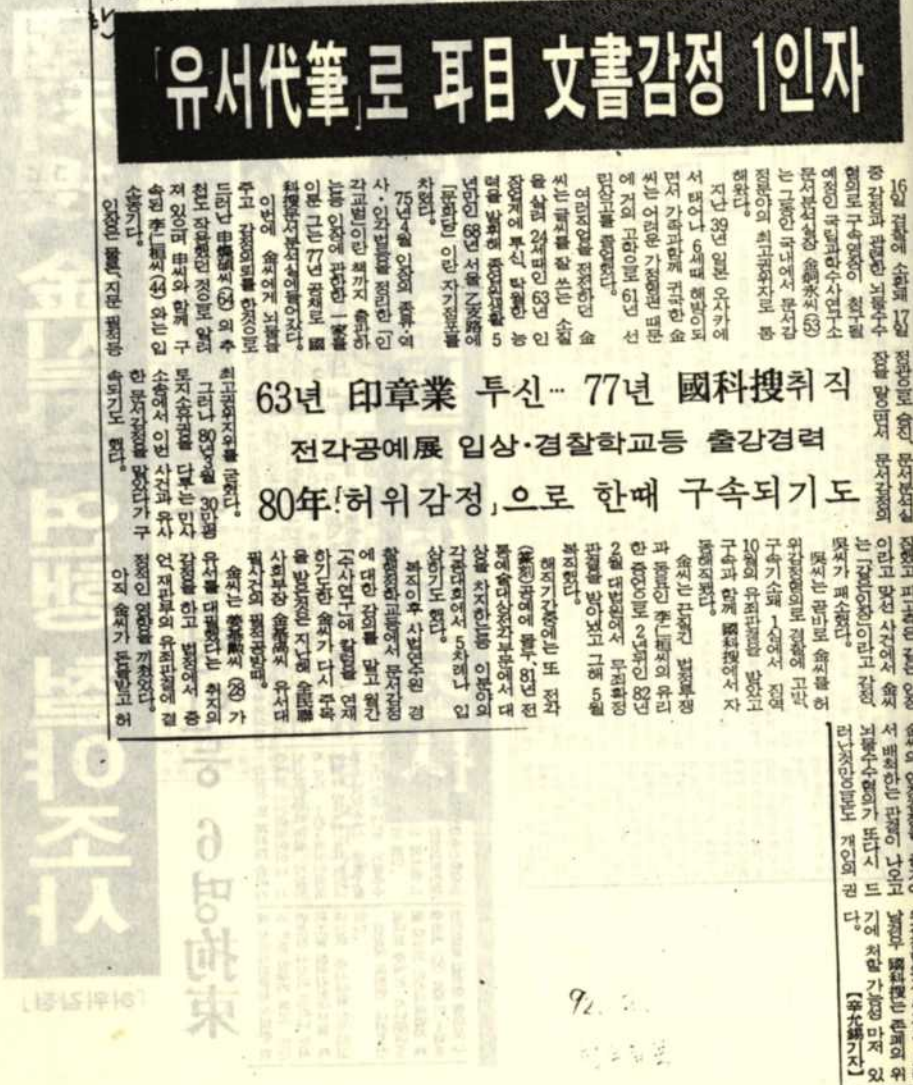
國科搜 金炯永실학인 부구익아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57)은 17일 열린 허위 감정 사건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은 뇌물과 허위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3년 印章業 투신... 77년 國科搜취직 전각공예展 입상·경찰학교등 출강경력 80年 '허위감정'으로 한배 구속되기도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57)은 17일 열린 허위 감정 사건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은 뇌물과 허위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57)은 17일 열린 허위 감정 사건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은 뇌물과 허위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 감정과 뇌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國科搜 金실장 구속

1,035만원 收賂 확인 감정인등 6명 수감

대신 하고 배수인 정정은 이를 불리한
1. 서울 장세재 등과
2. 부산 동대문구 소재의 김대
3. 서울한대 등 3곳에
전용 1990년 7월 26

이인
1990년 1504호
1990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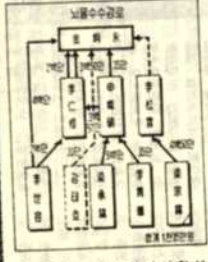
변조계약서 國科搜 인정
돈 빼이고 무고로 옥살이

國科搜 金실장 구속
1,035만원 收賂 확인
감정인등 6명 수감

나도 허위감정에 당했다



이인(右)은 1990년 1504호로 1990년 12월 30일



대검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大檢 「허위감정」 재분석
金실장 사례비로 받은 것

허위감정, 못박혀 의혹 그대로

국과搜 金捕永監인 누구인가
증거 조작 가능성 드러나 訟事시비일듯

국과搜 金捕永監인 누구인가
증거 조작 가능성 드러나 訟事시비일듯

국과搜 金捕永監인 누구인가
증거 조작 가능성 드러나 訟事시비일듯

국과搜 金捕永監인 누구인가
증거 조작 가능성 드러나 訟事시비일듯

국과搜 金捕永監인 누구인가
증거 조작 가능성 드러나 訟事시비일듯

17 중

「허위감정」 집중 수사

金실장 受賂 확인... 오늘 구속

문서실 직원 셋 관련 조사

私設감정인등 6명도拘束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검은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김실장은 서울지검에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김실장은 서울지검에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괴해」 전진기(수화) 문서실 직원 셋 관련 조사... 서울지검에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2월 17일 중안일보

어물정 넘어가면은 페是非

진정수사 과제와 판관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검은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김실장은 서울지검에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전문가 지능범죄 입증에 한계

허위감정 밝혀져야 再審가능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검은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김실장은 서울지검에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실장(55)을 포함한 6명(남 4명, 여 2명)을 구속했다.



서울지검장, 서울지검 부장, 서울지검 1부장, 서울지검 2부장, 서울지검 3부장, 서울지검 4부장

金炯永·李世容·李昌烈은 어떤 사람이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金炯永-수출업자...

다양한 직함의 大田유지행정

鑑定관련 소송 10여건이나

대田市의 大田유지행정, 다양한 직함을 가진 大田유지행정...



大田유지행정 관련 소송 10여건이나, 다양한 직함의 大田유지행정...

大田유지행정 관련 소송 10여건이나, 다양한 직함의 大田유지행정...

李世容

구속 李世容 고소로 受賂혐의

주먹 「대부」3 共부터 정치활동

李世容의 구속, 受賂혐의 고소, 주먹 「대부」3 共부터 정치활동...

李世容의 구속, 受賂혐의 고소, 주먹 「대부」3 共부터 정치활동...

李世容의 구속, 受賂혐의 고소, 주먹 「대부」3 共부터 정치활동...

李世容의 구속, 受賂혐의 고소, 주먹 「대부」3 共부터 정치활동...

李昌烈

受賂혐의 李昌烈

李昌烈의 受賂혐의, 정치활동 관련...

李昌烈의 受賂혐의, 정치활동 관련...

李昌烈의 受賂혐의, 정치활동 관련...

李昌烈의 受賂혐의, 정치활동 관련...

金실장 千여萬원 收賂

國科搜사건 “사레비명목”是認... 오늘 令狀



私設감정인의뢰인 6명 拘束, 허위감정 관련에 '검認'... 수감된 6명의 사진과 관련된 설명...

수감된 6명의 사진과 관련된 설명, 金실장 千여萬원 收賂 사건 관련...

이름만 키움 鑑定비키수사

진행 초기에 이미 발원점

【서울 22일 특파원 보도】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름만 키움' 1차 회의에서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免避性縮小수사 용납못한다

【서울 22일 특파원 보도】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민들레 원내..."
신협 부 <서울동로구내하원172>

허위鑑定이었다 早期중결

國科搜수사 철저한재조사 벌여야 여론

【서울 22일 특파원 보도】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國科搜사건」 국민들 큰충격 재박막게 제도보완 서둘라

【서울 22일 특파원 보도】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회창 후보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이름만 키움' 1차 회의가 열렸다.

(1988.6.18 제3종우원물(가)급인가) 제1161호

국과수 '거짓감정' 수사 뒷얘기

김철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실장 김형영(53)씨 구속을 마지막으로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밝힌 김씨의 허위감정 여부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지 만 6일 만에 많은 의혹을 낳긴 채 서둘러 종결된 이번 사건의 수사를 둘러싼 뒷얘기를 간추려 본다.

○...김철이 국과수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점은 돈"이 거래된 확증을 잡은 것은 이세용(41)씨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수사관계자가 밝혔다.

2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김형영씨 주변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던 김철은 대전시 국민은행 중앙동 지점으로부터 김씨의 부인 신아무개씨 계좌에 이씨가 송금

다. 그러다가 막상 김씨를 구속할 때는 1천만여원에 이른다고 밝혀, 김철이 수사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위해 뇌물액수를 '소액'으로 꾸어 놓았다가 나중에 '고액'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용의주도하게 작전을 짰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김철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가명계좌만 찾았어도 금액은 훨씬 커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철은 이 사실을 나타내면서도 1천35만원의 금액에는 졸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부터 김기운 법무부장관 등 검찰 수뇌부는 조속한 수사종결 방침을 나타냈던 데 반해 수사팀의 젊은 검사들 중에는 이번 기회에 범조계를 흔들어 놓는 '감정사기꾼'들을 뿌리뽑

찰을 너무 험지 말고 오징어를 씹어라"라며 농담반·진담반으로 언론소리를 떨어 놓기도 했다.

김철은 그러면서 "절대로 허위감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결과 허위감정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문서위조단이나 국과수의 다른 직원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단서 없이 무작정 수사에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월 중순께 문서위조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청청 특수기동대 소속 수사관들이 김형영씨에게 인쇄소에서 인영등을 복제해낸 사실을 추궁하며 1시간 가량 연행조사를 벌이자 김씨는 이 사실을 강기훈씨를 기소했던 서울지검 형사부에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풀려난 김씨는 며칠

실수로 남긴 '이세용' 실명 입금이 단서

수사결과 눈총의식 "검찰대신 오징어 씹어라" 김실장소환 경찰에 "웃벳을 각오" 호통치기도

한 2백만원의 발견함으로써 첫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돈은 이씨가 89년 8월 김씨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며 보낸 돈인데 무통장입금증에 이세용 명의가 있었다는 것.

김철은 소환된 이씨에게 이 무통장입금증을 들이대자 "그날은 직립 서술에 가기 싫어 아는 다방 종업원에게 송금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아가씨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이세용' 이름으로 송금한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린 뒤 자백했다는 것.

○...지난 17일로 사실상 종결된 국과수 수사결과 김형영씨의 수괴액수가 1천35만원으로 발표되자 김철 주변에서는 정교하게 짜맞춘 금액이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철은 수사착수 뒤 50만원권 의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며칠 동안 '엄살'을 피워 김씨가 소환되기 전날까지 언론보도에 는 뇌물금액이 '겨우' 3백만~5백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정도였

아 한다는 격극적 입장을 보인 사람도 적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서울지검은 이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창열씨 사건에서 '허위감정 논란'에 함께 얽혀들어 가기도 했던 만큼 수사에 참여한 서울지검의 몇몇 일선검사들은 수사착수 초기에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그친다면 앞으로 또 언제 검찰과 법원이 영터리 감정에 동탁당할지 모른다"면서 위계진들에게 검찰 상부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기도 했다.

○...김철은 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15일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충분히 예상한 듯 '김형영 실장을 구속하고 나면 그때 또 언론이 수사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17일 수사결과 발표 때에는 수사팀장인 서울지검 특수기동대 부장검사 발표장에 오징어를 내놓고 기자들에게 "검

사부에 조사받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발탄한 한 간부김씨는 경찰 간부에게 "반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명은 웃 벳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치며 불면한 심기를 보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번 국과수 수사과정을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본 곳은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28)씨 수사팀을 맡았던 서울지검 형사부였을 것이라는 평이다.

김씨 감정결과를 유일한 직접 증거로 삼아 강씨를 구속기소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주위의 눈총 때문에 수사전담인 특수부족에는 얼린도 못한 채 애타게 태우며 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 구수회의를 했다 는 후문.

한 부장검사는 "김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한탄하면서도 "그나마 거짓감정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행중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사실상 경찰 國科捜査수사문제점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국과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과수는 과학수사기술을 통해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국과수의 수사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국과수의 수사역할이 불분명하다. 국과수는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국과수의 수사역할이 불분명하다. 국과수는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국과수의 수사역할이 불분명하다. 국과수는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명탐색을 더기 의혹구명 미흡

구조적非理등 核心 못파헤쳐 쟁점사건 철저검증의지 실종

이원보강·지휘체계확립·발등의 불, 뒤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국과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과수는 과학수사기술을 통해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국과수의 수사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국과수의 수사역할이 불분명하다. 국과수는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국과수의 수사역할이 불분명하다. 국과수는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국과수의 수사역할이 불분명하다. 국과수는 수사팀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조사한뒤, 이창열씨의 수괴액수가 1천35만원으로 발표되자 김철 주변에서는 정교하게 짜맞춘 금액이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2/19 2면 2기 국과수 비리 전면수사 촉구

시민·재야 9개단체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민가협 등 9개 시민·재야단체들은 18일 검찰의 국과수 감정비리사건 수사종결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감정을 둘러싼 뇌물수수 행각의 전모와 이 뇌물이 거짓감정의 대가였을 가능성 등을 전면 보완수사를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강기훈씨 사건' 등 각종 시국관련 사건에서 판정결과를 조작하거나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해온 국과수가 '변칙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왔음이 입증됐다"며 "검찰은 국민여론 무마용의 부분적 수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했다.

거짓감정 본격수사는 이제부터

검찰은 '정치적 판단' 삼가야

19 2면 2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거짓감정 의혹 사건은 결국 수사 1주일 남짓 만에 "뇌물수수는 있었으나 허위감정은 없었다"는 진화 판정이 나타나 결론으로 막을 내릴 모양이다. 한마디로, 당연히 밝혀야 할 국가 감정기관의 구조적 부정보다는 몇몇 개인의 뇌물비리로 좁혀진 검찰 발표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설명에서 우선 눈에 띄게 거슬리는 것은 1천여만원의 뇌물이 감정인의 직업적 생명을 건 대가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대목이다. 연수도 역시러니와 그 돈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신의 구속에 대한 결정적인 갖대 노릇을 해온 유일 최고의 감정기관을 누르고 다녔음이 확인된 마당에, 대목이 거짓감정에 관련된 더 큰 액수의 뇌물을 밝혀내지 못한 수사력의 한계를 자탄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터에 그러한 발표를 태연히 할 수 있는 검찰의 뱃심은 차라리 놀랍기까지 하다.

검찰의 이러한 자세는 애초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진상조사나 해보겠다며 미웃거리던 때부터, 또 대규모 전담수사반을 만들어 1주일 만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면서도 부러 7명을 서둘러 구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보란듯이 수사를 매듭짓는, 다수 국민이 흘려보는 '예정된 수순'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또 이번 파문의 발단이었던 전문 인장·지문 위조단에 대한 소홀한 수사나 감정에 합의해준 국과수 직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검찰로서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국과수의 감정을 근거로 계류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난 각종 민·형사 사건이나 재판의 재수사나 재심신

정 사태가 잇따를지 모른다는 우려도 했을 것이고, 공권력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을 뒤흔들게 될지도 모를 사태 진전을 최소화하려는 고충이 없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검찰 수사결과가 국가 최고감정기관에 대한 의혹, 나아가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씻어주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 보인다. 당연히 그것은 검찰 자신에 대한 치명적인 불신과 맞물려 있을 또한 명백하다. 검찰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결여는, 가까스로는 수사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 등에서 국민들이 익히 보아온 검찰권의 정치적 행사에 대한 불신을 그 바탕에 깔고 있음을 검찰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조기 진화를 서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검찰이 그토록 고심했던 앞서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혹은 행한없는 '악재'로 드러날지는 두고 볼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검찰이 국가 감정기관의 감정 의혹 사건을 정치적 잣대로 제단하려 들었다면 그것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반부당한 단견임을 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의 거짓감정으로 재산을 잃었거나 육살이를 한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국가권력의 어디까지 잇달아 있을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그 분노와 절망을 '정치적 판단'으로 덮어 누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본격수사는 이제부터라고 우리가 서슴없이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社說

9 2면

國科搜 보강하자

—정신·행·담·누·소·출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검찰이 "진화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진화 판정"을 내린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진화 판정"을 내린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냉기류속의 發効

냉기류속의 發効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는, 냉기류속의 發効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냉기류속의 發効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냉기류속의 發効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國科搜 공신력회복 시급

「영구·영진」전면 이환의 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영구·영진)은 1992년 2월 19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영구·영진」정말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영구·영진)은 1992년 2월 19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國科搜요원 기능자격 시험

기구 확대 人力늘려

공동審議委員 「합의제」 강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영구·영진)은 1992년 2월 19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합의제」정말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영구·영진)은 1992년 2월 19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영구·영진'의 전면 이환을 결정하고,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영구·영진'의 연구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했다.

국가보안법은 법 사제의 위헌성과 그 적용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도 그동안 계속 논의가 증가하게 되어왔다. 유공훈장도 아직도 대통령령의 제도는 적용되어 오고 있어 실제 논란이 될만한 쟁점적인 3당합당으로 호기부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공 훈장제에서 국가보안법 제34조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진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훈장이 타당성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재판기부운동 발생

그렇다면 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있는 채로 유공 훈장을 받기까지 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은 다대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은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있는 채로 유공 훈장을 받기까지 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은 다대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은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13일 남부연은 남부연 사이의 화해와 불가할 때 고려하여 관련 입회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문헌에 남아 있는 내역 등이 남부연은 남부연 유공훈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공 훈장은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내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 당국에 피하여 갖기는 신세에 처해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남북합의로 실망없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거나 형 제 추수중인 사람들의 형사사실을 살펴보면, 형사사실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시를 부정하는 제재권위에서 존재한다면, 굳이 국가보안법에 피하지 않더라도 형법 등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권이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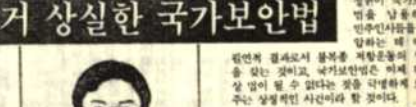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존립근거 상실한 국가보안법



윤기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제34조 제1항을 받고 있는 유공 훈장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실 적용으로 호기부된 제34조 제1항을 받은 것이다.

국과수 감정요원 자격시험 도입

내무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제1회 감정요원 자격시험을 제1회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며, 감정요원 자격시험을 통해 내무부 소속 감정요원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며, 감정요원 자격시험을 통해 내무부 소속 감정요원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과수 감정요원 자격시험 도입

국과수 감정요원 자격시험 도입

李世容씨 訴상대 2명도 "연행"

88년 大田아파트 사취기도 혐의

「허위감정」 폭로 趙씨 긴급拘束

趙씨 김근기 손흥신으로 連行

趙씨 김근기 손흥신으로 連行

검찰 「문서위조」 搜查 사실은 폐

李昌烈씨 공판 증인趙씨 "지난해 조사받았다"

趙씨 김근기 손흥신으로 連行

趙씨 김근기 손흥신으로 連行

李世容씨 訴상대 2명도 "연행"

88년 大田아파트 사취기도 혐의

「허위감정」 폭로 趙씨 긴급拘束

검찰 「문서위조」 搜查 사실은 폐

李昌烈씨 공판 증인趙씨 "지난해 조사받았다"

趙씨 김근기 손흥신으로 連行

國科搜 연구·개발위주 개편

지방분소 설치 업무분산

문서분석실 課 승격 「심사합의제」 강화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0차 연구개발위원회의를 열어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東亞時論



檢察權의 올바른 행사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과수 연구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위주의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조병길씨 전격구속 문제점

김형영 뇌물사건(1기) 수사(국과수) 비리의 거짓감정 의혹을 인연에 제보했던 조병길(47)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거짓감정 의혹사건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조병길 전직 구청장은 이윤호 전 국회의원을 작성해 남의 재산은 거모세이다 비수에 그치고 스칼라로 만들어진 사립을 리드했다며 살태양을 고

때 이씨의 김형영 유착에 대한 감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고 김형영이 김기호씨 유서대립 의혹사건을 휘말 수 있는 국과수 분석실실감 김형영(53·국과수)씨에 대한 거짓감정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 실무에서는 김형영 조병길에 대한 조사를 벌이려면 우선 윤서희조 단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가 서울 지방검찰청에 이윤호씨 등 유령 회 회사리조 단이 활동하고 있다

‘거짓감정’ 제보자 입막음 의혹

조씨 “김실장 감정비리 증거있다” 주장 ‘무고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빈곤

조병길 무고죄를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의 수사 상대방이 조병길 김형영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윤호(41·구속중)씨는 김과 이미 6-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김형영이 회

다. 수사에 갈수록 김형영이 이날 조씨에게 제비매 방신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조씨는 윤서희조와 거짓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소심한 남의 이윤호씨 비호세 아니나 권외의 검찰직 증거 국과수의 김학내를 등을 밝혀지지 못했다.

한편 검찰에 구속된 모든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한 조병길은 장만 괴물이랄까 했었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미 국과수 수사관 국과수(국과수) 거짓감정

이윤호 조병길의 사기 등 선과 300만원이 넘는다는 사기비수 등 혐의로 연행된 조병길은 사전 기사 20여명의 중대사상 일으킨다. “진심은 밝혀진다. 혐의는 제일이 막을다”고 외치며 조병길의 김과 수사관(조 단)의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이재철 기자)

조병길의 김형영 유착에 대한 감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고 김형영이 김기호씨 유서대립 의혹사건을 휘말 수 있는 국과수 분석실실감 김형영(53·국과수)씨에 대한 거짓감정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니, 무슨 김과수장에게 뭐 하십니까 없는데요." "아, 김과수 장" 조병길(47)씨의 제기에 맞받아 이윤호 전 김과수장에게 받았던 장부라며 김과수장을 잡고 푸 리니까 다시 김형영으로 달려왔다.

19일 오후 4시에 이미 국과수 수사관 국과수(국과수) 거짓감정

법에 밝은 조씨에 검찰 3번 망신

이윤호 조병길의 사기 등 선과 300만원이 넘는다는 사기비수 등 혐의로 연행된 조병길은 사전 기사 20여명의 중대사상 일으킨다. “진심은 밝혀진다. 혐의는 제일이 막을다”고 외치며 조병길의 김과 수사관(조 단)의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이재철 기자)

이윤호 조병길의 사기 등 선과 300만원이 넘는다는 사기비수 등 혐의로 연행된 조병길은 사전 기사 20여명의 중대사상 일으킨다. “진심은 밝혀진다. 혐의는 제일이 막을다”고 외치며 조병길의 김과 수사관(조 단)의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이재철 기자)

“文書 印章 허위감정으로 敗訴” 國科搜 직원 告訴事態

가/23

金炯永실장 판정등의 문제 제기 뇌물관련여부 檢察처리 주목

소파자문(서울)에 20년간 6건 6건 操券전해

【서울=가/23】가/23일 서울지방법원 서부구판(재판장 김호원)은 19일 법정 증언을 통해 “이씨의 위변조 사건에 대한 감정적 불충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이윤호씨를 거짓감정 혐의로 김형영에서 거짓감정거기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윤호씨 등 배 부른 김과수리조 단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진심은 윤서희조 단 김형영의 조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밝혀내기 위한 데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과수씨가 이 방향으로 감히 지 않고 단순히 사기비수후 부 고 상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가 미흡 해 조씨에 대한 국과수 보복위협이거나 입막음을 위한 리리사원에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갑우 기자)

이윤호 조병길의 사기 등 선과 300만원이 넘는다는 사기비수 등 혐의로 연행된 조병길은 사전 기사 20여명의 중대사상 일으킨다. “진심은 밝혀진다. 혐의는 제일이 막을다”고 외치며 조병길의 김과 수사관(조 단)의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이재철 기자)

이윤호 조병길의 사기 등 선과 300만원이 넘는다는 사기비수 등 혐의로 연행된 조병길은 사전 기사 20여명의 중대사상 일으킨다. “진심은 밝혀진다. 혐의는 제일이 막을다”고 외치며 조병길의 김과 수사관(조 단)의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이재철 기자)

의혹남긴 수사종결... 진짜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과수 수사관 김대중 씨. 김대중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유서대필 사건 등 뒷감당 우려
검찰, 취재중단 압력·진상 은폐
— 李世宗씨에 대한 배려도 안 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세용씨 부탁 받고 조병길씨 글씨 모방
중앙건설 전직원 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창열씨 실험선고 허위감정 인정판해
허위감정 인정판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세용씨 부탁 받고 조병길씨 글씨 모방

중앙건설 전직원 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과수를 독립기구로 세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를 경찰청의 지휘 감독 아래 두기로 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창열씨 실험선고 허위감정 인정판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건희 씨가 1991년 11월 16일(수요일)에 서울에서 사망한 지 10일이 지난 26일(수요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건희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과수 지휘권 경찰에 위임

내무부, 운영개선안 확정 민사소송 문서감정 금지
 내무부·경찰청은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에 위임하고 민사소송 관련 문서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과수 운영개선안'을 확정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국과수 운영·감독에 관한 운영을 제정해 내무부 공표할 예정이다.
 개인인에 따르면 국과수의 소관할 제정된 3일 이후 공무원의 인사, 감사·감찰·예산인정 및 집행기구의 조직인정 등 모든 운영감독 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과 관련한 문서감정을 일체 금지할 것으로 하는 한편 경찰청의 재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심리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담당자를 2~3인이 복수지정해 별도로 감정된 뒤 공동심리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詐欺에 속고鑑定에 망했다”

노. 6. 6 일

「國科搜 허위검정」 피해자 모임 「새한시민회」 회장 金 仙 月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새한시민회의 과학수사연구소가 발행한 후 검정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검정 때문에 재산 등 날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모임을 결성, 조직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각종 재산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한시민회」의 주최로 6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1-1번지 새한시민회 회의실에서 「국과수리원」의 허위검정 피해자 모임이 발족했다.

새한시민회 회장인 김희수(63)은 「국과수리원」의 허위검정 피해자 모임이 발족한 데 대해 “국과수리원의 허위검정 때문에 재산 등 날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 조직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21】

第21829號

「국과수리원」의 허위검정 피해자 모임이 발족했다. 김희수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金炯永 씨 2년 선고

「국과수리원」의 허위검정 피해자 모임이 발족했다. 김희수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김희수 회장은 “국과수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34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회원들은 대학교수와 박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매일 1만 원씩 회비를 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자료5)

정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수사'한다

손중양(본지 기자)

'국립'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불허하는 기관. 그러나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에도 '과학수사'는 한계를 드러낸다. '과학수사'의 역사는 '고문수사'와 함께 시작부터 식민지 지배를 위해 쓰여진 것.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미국령인 의문사 사건마다 받는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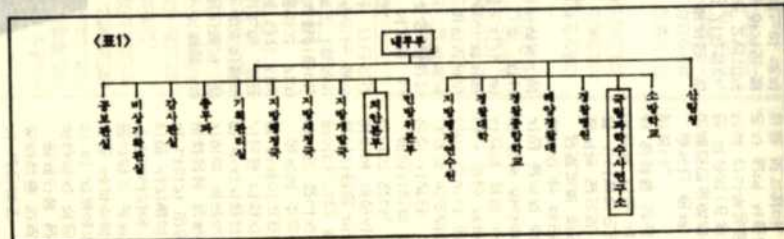
지난 8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 기념으로 「과학수사 30년사」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 당시 치안본부장이던 강인상은 "새로운 감청기법을 부단히 연구 개발하고 신속 정확한 감청업무처리로 경찰수사의 신뢰성 확립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사를 썼다.

그러나 이같은 지사를 무색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다음해 87년 1월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고문 처사케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강인상 당시 치안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경의 황적준 박사에게 회유와 강압을 가했고 부경감청서를 두차례나 고쳐 쓰게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1년 뒤

인 88년 1월에 황적준박사가 당시의 일기장을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드러났고, 그때서야 경찰은 여론에 밀려 강 전치안본부장을 구속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제점이 일부나마 드러났으며 이를 지탄하는 사회여론도 비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월규군의 사인을 둘러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또다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저히 단순익사로 보기 어려운 사체의 상태와 많은 정황들을 배제시켜 놓고, 장기내 토탈크론 발견만으로 익사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배후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본지 89년 6월호 참조).

그렇다면 왜 이 연구소가 계속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력을 알아 보기로 하자.



정치

일제·미군정의 지배기구로 출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 1조류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부)①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를 둔다.
- ② 연구소는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시를 할 수 있다.

다 이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무부장관의 지휘 아래 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수사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각종 과제를 수행하는 내무부 부속기관이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월4동 331-1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0여명의 박사학 포함, 11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소의 연혁은 멀리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장악해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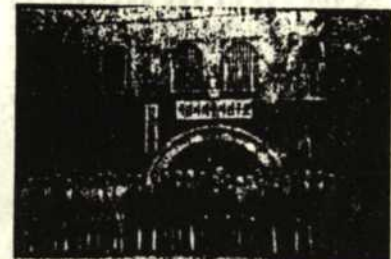
1909년 일제는 조선의 사법권과 감옥사무(監獄事務)를 완전히 장악했다. 1910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부 제11호로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누병가중치벌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법과에 지문계(指紋系)를 설치하고 전국 형무소의 수형자 지문을 채취하여 전과유무의 확인자료로 삼기 시작했다. 1931년 8월 경에 이르러서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를 설치하고 수형자는 물론 범의 용의자·경범죄반자 및 검속자의 지문을 채취·보관하고 인사감식(人事鑑識)에까지 이용했다.

그 뒤 일제경찰은 1935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다시 법의·이화학실(法醫理化室) 및 형사진실을 설치하고 번사체에 대한 해부감정과 독극물 등에 대한 이화학적 감정을 실시하고 사진현상·감정·개인식별사진까지 작성, 수사에 활용했다.

일제경찰의 주업무는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있었고, 따라서 '과학수사'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주안점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은 일제 식민지통치기구의 일부였던 '과학수사기구'는 해방된 후 미군정에게 인수됐다.

미군정청은 1946년 4월 1일 법무국 형법과 및 경기도 경찰부에 각각 소속되어 있던 지문계를 통합하여 경찰부 수사국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지문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동시에, 경기도 경찰부 법의·이화학실과 형사진실을 통합하여 법의학 실험소를 설치, 번사체 해부감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중앙형구내에 있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할동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용포구 용문동에 있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물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서대문구 의주로에 있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물. 88년에 양천구 신월동으로 연구소건물을 새로 지어 옮겼다.

미군정은 이어 받은 이승만정권은 48년 11월 위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 내무부 치안국 내에 감식과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감식과 내에 법의학계·이화학계·지문계 등 3계를 두었다.

다른 관료기구와 마찬가지로 미군정은 경찰조직에도 일제경찰에 복무한 8천여명의 한국인 가운데 5천여명을 미군정경찰로 임명했다. 특히 미군정의 경찰자 우대방침에 따라 경사급 이상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

으로 세워진 사실은 이후 경찰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찰조직이 정치권력에 전적으로 봉사하고 일제경찰의 잔혹한 고문수사 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조직내의 감식기구가 민중의 요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를 은폐하려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당연할 것이다.

과학수사연구소의 조직과 업무

감식사수기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된 것은 1955년부터였다. 1955년 3월 25일자 대통령령 제1021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가 만들어졌다. 이에따라 치문감식사수는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에 그대로 두고 기타 감식사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괄 관장하게 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소장 아래 6과 24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소의 업무는 연구와 감정, 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업무란 직권 각자가 연간 연구계획에 따라 수사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업무는 법의학, 물리학, 법화학, 거짓말탐지기, 사진술 등을 위시한 제반 과학을 응용하여 증거물건의 감정을 시행, 일선수사기관을 지원하는 것.

또 연구업무는 일선 수사관에게 감식이론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수사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것과 외국의 최

신 감식기술을 습득·응용하기 위하여 직원을 해외로 견학연수시키는 것, 그리고 연구성과를 연보에 수록, 간행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업무들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업무이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 이 감정업무는 해마다 그 업무량이 급속히 증대, 연간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의뢰기관은 총처리건수의 50% 이상이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것이고 그의 검찰, 법원, 안기부, 군중에서도 감정물의 처리를 의뢰한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지휘하고 이용하는 이들 기관들이 적어도 시국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입장이기 힘든 기관들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해 왔고 민주인사들을 수배·색출하는데 이 '과학수사'를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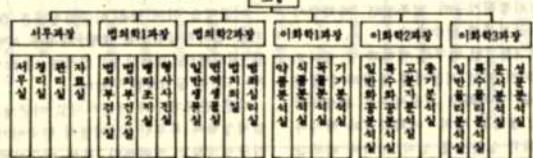
독재권력 앞에선 '과학수사'포기

지난해 여름 경기도 남양주군의 원진래이온(대표이사 백영기)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이 발생하여 직업병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환기시켰던 일이 있었다. 이에 앞서 4월27일 '원진 민주노조경회위원회' 명의로 당시 노조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공개질의서' 형식의 대자보가 이 회사 담벼락에 붙었다. 그러자 회사측은 즉각 이 '불온 대자보'와 '용의점 있는 사원'의 필적대조 감정을 남양주경찰서에 의뢰했다. 남양주경찰서는 다시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대자보의 필적과

<표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구성원

구분	계	일반직				경찰직			연구·의뢰직			행정직			기타직	고용직			
		소장	2과장	6과장	7과장	8과장	소장	과장	경장	소장	과장	연구사	소장	5과장			6과장	7과장	
현원	119	24	1	9	9	5	5	1	4	48	4	12	32	14	9	3	2	1	27

<표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구(8과, 24실)



정치



'용의자' 이상필씨의 필적이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회사측은 이상필씨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이 회사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는 이황화탄소 중독이라는 직업병문제가 터지면서 곧 드러났지만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기업측과 경찰은 '불온'이라는 딱지를 붙여, '과학수사'를 이용했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에 나타난 문서감정실의 감정 건물 중에도 사건명이 '불온문서'로 되어 있는 필적감정이 많다. 이 '불온문서'건과 안기부(80년 이전은 중앙정보부) 등에서 의뢰한 건물은 대부분 시국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해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처럼 '과학수사'를 적극이용하는 한편 독재정권이 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조작과 은폐를 일삼는 다.

60년 3.15부정선거가 자유당과 경찰의 각본대로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아산에서는 이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과 함께 강력한 성능의 최루탄을 발사했다. 시위는 9명의 사망자와 80여명의 중상자를 내고 밤 11시30분경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은 시위진압 후 이날의 시위를 공산당 지하조직에 의한 카이폭동으로 몰기 위해 병원의 시체실에 있는 희생자의 호주머니에 '불온배리'를 집어 넣는 등 사전조

작을 집요하게 진행시켰다.

4월11일 아산 앞바다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1구가 떠올랐다. 3월15일 아산시위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던 10대 소년 김주영군 이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유영호씨는 시신을 부검하고 타살이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씨의 일력에 굴복해 '의사'라고 판정을 반복했다.

4.19 이후 유씨는 반민주행위자로 몰려 결국 61년 연구소 소장직을 그만두고 법의학을 포기, 미국 망명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과학수사연구소의 판정반복에도 불구하고 김주영군의 시신은 아산시민을 다시 불기하게 했고, 4.19 혁명의 기록체가 되었다.

역대 경찰은 이같이 시국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은 조작과 은폐를 해 왔다.

대탐합 물리현 '타살'시신들

한편 1979년 8월 회사측의 일방적 폐업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신민당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노동조합 김경숙양의 죽음은 유신독재의 종말을 고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79년8월11일 새벽 2시경 마포 신민당사 4층에서 잠자던 YH노동조합의 농성노동자들에 대해 '101호작전'으로 명명된 경찰의 강제진압사건이 시작됐다. 수백명



이철규씨의 미망에 따라 사신은 노점판매
특허상과 7만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민주사회의 대변자에게 당시 500-1에 하고
있다.

의 경찰이 들어와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끌고갔다. 잠시후 당사 직원 지하실 입구 아래에는 YH노조 상무집행위원 김경숙양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8월13일 이순구 당시 서울시장국장은 "숨진여공 김경숙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수락으로 인한 후두부골절, 허리뼈 및 엉덩이뼈 골절 등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양의 추락경위에 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제집행은 정치문제로 비화했고 이는 다시 부마항쟁을 촉발시켰으며, 지베세혁명의 내분을 심화시켜 결국 10.26을 통한 유신독재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했다.

김주영군과 김경숙양에 이어 독재정권을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은 죽음은 지난 87년 박종철군의 죽음이

다. 정치 입선에 등장할 때부터 우수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전두환정권은 86년 5.3인천시위를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담함을 가했다. 경찰과 안기부는 많은 학생과 노동자, 민주인사들을 구속했으며 고문으로 조작된 '과격사건'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 전두환정권의 말기적 대담함에 재기를 박은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었다. 이 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압력에 따라 날조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유종진씨는 지금도 소장직을

맡고 있다. 박종철군 사건 이후 이 연구소의 재설계선 또는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이철규군 사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단발' 발표가 실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문수사' 허위 포괄하는 '과학수사'

이철규군 사건도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같이 정권의 민주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만큼이나 중요한 시국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정권의 민주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일정에 차질을 가져온 뿐 아니라 자칫 바군사건과 같이 국민대항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최대한 이 사건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치열하게 결구했으리라는 것은 그들의 생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 보조기관에 불과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 불가능한 것이었다.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때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하여금 '고문수사'를 은폐할 것을 강요했던 것처럼 이철규군 사건에 대해서도 '과학'이 '비과학적 수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은 옳가지 않고 있다.

유서사건 기타자료

(소식지, 신문모음, 주·월간지)



[Faded text, likely a list of documents or references related to the case.]

■머리글



"무엇이 진실인가를 부름은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아 줄것"을 호소하며, 강기훈씨가 검찰로 자진출두한지도 한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갖 회유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검찰의 강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는 의연히 진실을 수호하여 왔으며, 여러차례에 걸친 참고인들의 검찰조사와 필적자료에 대한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감정결과 등에서 검찰의 조작기도가 터무니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그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두 달여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받고 있는 홍성은씨의 진술을 유일한 근거로 자살방조라는 죄목을 들춰 강기훈씨를 기소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현정권은 사건담당검사인 강신욱, 신상규검사를 승진시킴으로써 이른바 '유서대필수사'가 자신들의 '5월위기 탈출구도'에 기여한 공로를 논공행상하였던 것입니다.

현정권은 엄청난 여론조작과 공안권력의 힘을 믿고 무고한 한 인간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여 검은 것을 흰 것이라 강변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한 최대의 날조조작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회색만연하여 연출하고 있는 이 사기극이 자신들의 추악한 주검을 묻을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유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5공말 관계어론의 업호하여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박종철군사인 축소은제조작사건이 결국은 만천하에 폭로되면서 5공정권의 임종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의 독재자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자신의 추악한 생명을 연장해 보고자 많은 사건들을 조작해내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광분했지만 결국은 '한뼌 손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에 의해, 그리고 양심을 수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의문의 조작사건과는 달리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생생한 증거자료가 너무나 많이 널려있고, 검찰의 여지조작혐의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진실의 규명과 조작책임에 대한 추궁은 어떠한 시간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고 진실과 정의가 서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용기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그 진실은 영원히 암흑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강기훈후원회를 결성하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기훈 한 개인의 양심과 명예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땅에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양심세력을 규합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 사회의 민주화를 공동으로 이루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보가 강기훈의 양심과 명예를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데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기도가 되고, 검찰의 조작음모에 맞서 진실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기훈은 지금

지난 6월 24일 명동성당에서 검찰로 자진출두한 강기훈씨는 25일까지 철야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어 매일 아침출정, 밤늦게 구치소로 들어오는 반복적인 일과를 계속했다. 강기훈씨를 면회한 가족친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의 근황을 소개한다.

모욕과 협박으로 계속된 조사기간

자진출두 이후 철야조사를 받은 것이 3번정도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그들은 언어를 통한 인격적 모욕을 자주 주었고, 뺨과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철야조사에서 졸면 새워놓고 조사를 계속했다. 그들이 김기설씨의 분신 직후 모습을 찍은 사진을 들이대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옥박지를 때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10여일의 조사기간중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어머니를 데려다 조사하겠다." "이영미를 구속하겠다."며 협박을 계속했다. 기소 1주일 전쯤부터는 별다른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면회를 못하게 하려고 매일같이 검찰청으로 불렀다.

검찰 발표와는 다른 홍성은씨의 진술

조사를 받으며 서준식 전민연 인권위원장, 임무영 사회부장, 홍성은씨, 혁노맹조직원 등과 대질신문차 만났다. 홍성은씨는 평소때와 달리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서로의 기억이 일치되지 않을때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홍성은씨의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연 전화번호를 적어 준 사람이 누구인가하는 질문에는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부분과 현재의 상황을 직접 여러사람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홍성은씨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결심한듯 일었다고 대답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강기훈씨는 신문보도와는 달리 "유서를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밖의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자신의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밀착 감시로 큰 불편 겪어

구치소 생활은 다른 시국사범에 비해 유독 감시가 심해 불편한 점이 많다. 검찰로부터 지해할 위험성이 있으니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24시간 감시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 6명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7월 17일 이후 표면적인 밀착감시는 풀렸으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감시로 인해 불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밖의 일꾼들이 걱정된다..."

신문이 구치소로 들어와 아침 저녁으로 4개 정도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아직까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제대로 독서는 하지 못하지만 컴퓨터 관계서적과 간행물 위주로 책을 읽곤 한다. 요즘은 육체적으로는 편한 상태이나 밖에서 활동하는 일꾼들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아프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강기훈후원회 발기인대회 보고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에 의하여 고 김기철열사의 유서대필 및 자살방조의 누명을 덮어쓰고 차가운 감방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기훈씨의 앙심과 진실을 믿고 그의 승리를 기원하는 강기훈 후원회 발기인 대회가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강기훈씨의 모교인 단국대학교 학생극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발기인과 모교동문, 재학생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발기인 대회는 단국대 민주동문회 회장 김범열씨의 사회로 1부 민중의례, 격려사, 대회선언, 발기인 대회장 선출, 운영위원 선입, 결의문 낭독, 2부 진상보고회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기인 대회장으로 선출되신 신창균 전민련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강기훈씨의 진실과 앙심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진실과 앙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견제하고 "후원회 사업을 통해 진실의 승리를 앞당기자"고 말하였습니다. 금번 발기인 대회에서는 많은 발기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진관스님을 비롯한 8인의 임시운영위원을 선임하여 후원회를 빠른 시일 내로 결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임시운영 위원 및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위원 •
 - 김범열 (단국민주동문회 회장)
 - 문국주 (천사협 사무국장)
 - 인재근 (서울 민통련 부의장)
 - 진 관 (통일협 부의장)
 - 유춘자 (여성계)
 - 유기홍 (서정협 정책위원장)
 - 박남운 (건악)
 - 이창희 (단국대 총학생회장)

 - 발기인 명단 •
 - 정당 : 문동환 박석무(신민당) 박용일 이원주 홍인식(민중당)
 - 종교 : 오용녀 윤순녀 문국주(천주교) 지선 진관 송연택(불교)
 - 여성 : 이호재 이미경 한명숙 유춘자 배진수 나영희 신덕자
 - 박난숙 이영순 고애신 (여성단체연합)
 - 학술 : 강남희 안병무 장하진 이익주 이인재 서종석 변갑수 (학술단체연합)
 - 계 사회단체 : 문익환 계훈계 배기환 강희남 조용술 박형규
 - 이종민 권처용 좌병준 정동익 조화순 이영순 박영모
 - 이창복 신창균 배종열 한상열 김승호 서준식 김근태
 - 김희택 황인성 조성우 이규영 최규성 김거성 인재근
 - 이해학 김명식 김선덕 이천재 전창일(전민련)
 - 권종태 이재만 이덕선 유정석 양화수(전농)
 - 고광석 노수희 이태고(전민련)
 - 권영길 한국연(연노련)
 - 황상규 최예용 박상철 여진구 안병욱 이상훈(공해추방연합)
 - 임종철 박남운(건악)
 - 이범영 한충목 이원영 김종철 김종현 유기홍(전청대협)
 - 김범열 우수영 류두현 김제승 김효진 허미한 최광희
 - 이종필 이영미(단국대민동)
 - 김순진 김화순 이원주 안소정 주기화 김현정 김현자(이대민동)
 - 김승국 김상민 김미희 박정목(송실대민동)
 - 우상호 강호국 소동남 오세한 김미경(연세민동)
 - 양금화(이하) 윤순옥(명지) 한동민(중앙) 오민상(한신)
 - 단국대학교 : 이창희 박은주(총학생회) 허정민(단언협) 최용천 박세진(대학원학생회)
- 총 120인

진실은 승리한다 1호

강기훈 후원회 준비위원회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적

1.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운다.
2. 강기훈의 양심과 명예를 지키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사회 각계각층의 양심세력을 규합하고 인권의 보호와 신장,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공동노력한다.
4. 강기훈의 재판이 개시되는 8월 말 이전까지 후원회의 정식결성을 준비한다.

사업개요

1. 조직사업

가) 결성대회 준비 사업

- 1)결성대회는 재판일정이 확정되는 8월 말경으로 한다.
- 2)특념은 양심세력을 대표할 수 있고 강기훈사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 3)준비위 활동과정을 통해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경험을 쌓는다.

나) 회원 확대 및 관리사업

- 1)각 단체, 분야별 발기인 책임하에 회원입회서를 받고 결성대회시까지 회원 3백가운동을 벌인다.
- 2)사계단 신부, 한고협 목사, 민예총 문화인, 민고협 교수, 민가협 회원, 민변 법조인,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양심세력을 망라하여 후원회원을 확대한다.
- 3)신문광고, 선전물 등을 통해 회원가입 홍보를 하고 우편접수, 각 종 집회 등을 통해 일반회원의 입회서를 받는다.
- 4)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회보(소식지), 선전물, 자료 등의 발송을 통해 회원관리를 한다.

2. 선전사업

가) 회보(소식지) 발간

- 1)회원을 주대상으로하여 결성대회전까지 시작지(3회 예정, 1회 5백부)를 발간한다.
- 2)내용은 강기훈 동정 및 편지, 후원회 사업내용, 기고문, 인권소식 등으로 한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나) 책서 발간

- 1)그동안 확보된 자료를 재정리하여 책자형식으로 발간하여 판매한다.
- 2)전민연 선전국의 협조와 사계단 후원으로 발간한다.
- 3)7월 말까지 집필, 편집마감하고 8월 중 제작 완료한다.

다) 기타사업

- 1)이미 제작된 진상보고자료집(중보판) 및 선전유인물(7월 13일 전민연발행)을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널리 배포한다
- 2)주요 일간지 및 잡지에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문인, 교수, 법조인 등의 특별기고와 일반후원회원의 독자부고를 조직한다
- 3)주요 계기마다 논평, 성명서 등을 내고 검찰법원기자 등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4)어머니 등 가족과 후원회원들이 각종 집회, 모임 등에 참석하여 연설한다.

3. 재정사업

- 가)회원회비 : 회원별 약정금액을 정하고 매달 납부토록 한다.
- 나)모금 : 각 정당, 단체 및 발기인 특별회비를 모금한다.
- 다)자료집, 책서를 판매한다.
- 라)8월 중 일일찾집, 문화행사를 열어 모금한다.

4. 법률구조 및 변호

가) 후원회원의 변호를 조직한다.

- 강기훈 : 서울구치소 61번
- 임무영 : 서울구치소 120번 (전민연 사회부장 : 이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가 집시법으로 구속되었음)
- 서준식 : 성동구치소 38번 (전민연 인권위원장 :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자진출두하였다가 보안관찰법으로 구속됨, 7월 25일 현재 항의단식 16일째)

나) 변호인단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자료수집, 증인 확보 등 재판준비를 한다.

다) 검찰의 불법수배를 받고있는 이 사건 참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홍성은씨의 신체의 자유 확보를 위해 싸운다.

5. 대외협력 사업

- 가) 전민연, 국민연합, 국민회의 등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일정계기 시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실행한다.
- 나) 국회상임위 등에서 정치문제화하기 위해 의원방문, 자료발송 등의 사업을 한다.
- 다) 민가협, 한고협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해외인권단체와의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 라) 전민연 서준식인권위원장의 구속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단식 상황을 알리고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에 동참한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 CCA 필적감정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본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7월 18일 오전 9: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31일 조사위원회가 CCA(아시아 기독교협의회)에 의뢰한 필적감정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견에는 CCA 국제위원회 총무인 Clement John, 조사위원회 위원장 박형규목사와 김찬국교수, 홍성우 변호사등이 참석하였다.

조사위원회가 CCA에 의뢰한 문서는 김기설씨 유언서(사본)와 전민현수첩(사본), 송의여전 메모(진본), 강기훈씨 87년 옥중서신(진본) 등 모두 9종이다.

CCA의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을 수행한 인물은 大西秀雄(오니시 요시오)이라는 사람으로 1948년부터 1979년 정년퇴임시까지 동경국립박물관의 문부기관(고문서나 미술품을 감정, 수집, 정리하는 전문가)으로 일했으며, 1951년부터 경찰청이나 변호사가 의뢰한 필적감정에 종사하였다. 그는 1974년 일본경시청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필적감정 분야에서 개인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감정인협회 대표감정인 - 회장 격) 현제도 매년 30건의 형사, 민사재판의 필적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니시 요시오씨의 필적감정 결과 김기설씨가 작성하였다는 전민현수첩 등 6종의 문서는 유서필적과 동일하며 강기훈씨의 1987년 옥중서신과 1991년 5월 21일자 필적은 유서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자주 : 오니시 요시오의 감정서와 실체현미경 사진 자료는 모두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본 회보에는 감정서의 주요내용만을 발췌 요약하여 수록합니다. 원문은 끝이 발간할 '사건진상 백서'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감정 사항

1. 하기(下記) ①의 유언서의 필자는 누구인가?

- ①유언서 2통 (사본)
- ②수첩 4장 (사본)
- ③강기훈의 옥중편지 2통
- ④강기훈의 최근 필적 1통
- ⑤송의여전 메모 1통
- ⑥방명록노트 (성남터사랑학우회) 1통
- ⑦상황일지 (성남민정면) 1통
- ⑧봉투 (성남민정면) 1통
- ⑨이력서 (90년) 1통 (사본)

진실은 승리한다 1호

위의 ②와 ⑤-⑨의 필적은 김기설의 것이다. 감정주문(鑑定注文) 및 이외의 본문에 나오는 감정자료는 위에 나오는 ②안의 숫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감정 주문

1. 유언서의 필적은 ② 및 ⑤-⑨을 쓴 김기설의 필적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김기설이 직접 쓴 것이다. 강기훈이 쓴 것은 아니다.

감정 이유

유언서 필적의 각 자획선의 필법을 보면, 횡선(橫線)에서는 직선적 필치(直線的筆致)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多用)하고 있다.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直曲線的筆致)로 수직방향 이외에도 좌하방(左下方)으로 사선(斜線)을 그어 내리는 두가지 종류의 필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김기설이 쓴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횡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하며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종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를 다용하여 수직과 우하방(右下方)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縱筆)을 가압(加壓)하지 않고 뾰뚱내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횡선에서는 기필(起筆)시에 가압하여 뾰뚱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필적 중에서 특히 고유필법(固有筆法)을 사용하여 항상성(恒常性)을 나타내는 개성표현(個性表現)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하의 점을 들 수 있다.

1) 사선(斜線)의 필법에 관하여

각 문자의 최초의 제일획(第一劃)의 짧은 사선의 필법을 기본적으로 'ㄱ', 'ㄴ', 'ㄷ', 'ㄹ'과 같이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사선을 직곡선적 필치로 길고 짧게 쓰며, 여기에 필압(筆壓)의 가감이 작용하여 매우 변화된 필법을 사용하여 개성표현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개성표현의 필법의 구별을 찾아내는 것이 감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기설이 쓴 68개조의 사선 중에서 'ㄱ'과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오는 사선의 필법이 52개조, 반대로 'ㄴ'과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오는 사선의 필법이 16개조나 되어,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여 쓰는 고유필법(固有筆法)이 확인된다.

강기훈이 쓴 필적에는 167개조의 사선의 필법이 'ㄱ'과 같이 우하방을 향하여 기필에서 가압한 후 뾰뚱내리는 필법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견술한 김기설의 사선의 필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감정문건인 유언서의 사선의 필법을 보면, 42개조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오는 필법이 11개조, 반대의 필법이 31개조로 각기 혼용되고 있으며, 자료에 든 김기설의 사선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다. 강기훈의 사선의 필법과는 명확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 'ㄹ'의 필법에 관하여

자료의 문자 중에서 '일', 등의 받침 'ㄹ'의 필법을 보면, 김기설이 쓴 ㉔에는 14개조, ㉕에 3개조, ㉖에 1개조, ㉗에 4개조 등 합계 26개조가 있으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여 제1, 2, 3획을 한 획으로 단번에 쓰며, 제3획을 끝음림의 횡선으로 뺄어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기훈이 쓴 받침 'ㄹ'은 ㉓에 58개조, ㉔에 84개조가 있으나, 모두가 'ㄹ', 'ㄹ',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가릴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문건인 유언서의 'ㄹ'문자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20개조, 둘째장에 14개조가 있는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고 단숨에 쓰고 있어, 김기설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는 상이함이 확인된다.

3) 'ㅏ', 'ㅑ'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ㅏ', 'ㅑ'의 각문자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㉔에 40개조, ㉕에 14개조, ㉖에 5개조, 마지막의 봉부 결면의 ㉗에 3개조, ㉘에 14개조가 있다. 이것들의 제 2, 3 획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수평으로 긋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고, 그밖에 끝 부분을 밑으로 향하여 내려오는 필법도 병용하며, 종필을 가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기훈이 쓴 ㉓과 ㉔의 'ㅏ', 'ㅑ' 문자는 전부 297개조이다. 그 중에서 제2, 3획의 필법을 보면 끝음림의 필법을 사용하여 종필을 뺄어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언서 2장 중에는 'ㅏ', 'ㅑ'의 문자는 도합 83조가 있다. 제2, 3획의 필법을 보면, 'ㅏ', 'ㅑ'와 같이 수평 혹은 끝음림의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김기설의 필법의 특색과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4) 'ㅓ'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문자중의 'ㅓ'과 같이 'ㅓ'부분의 필법을 보면, 'ㅓ'과 같이 제2획을 급히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필법과, 'ㅓ'과 같이 제2획의 종필에서부터 전중(전중: 펜을 매치 않고 겹쳐서 다음 획을 쓰기 시작하는 것)하여 제3획으로 이행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김기설이 쓴 32개조의 'ㅓ'부분을 보면, 이력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4개조를 해서체로 'ㅓ'과 같이 쓴 것과, 'ㅓ'과 같이 제2획의 종필을 끝매듭짓고 있는 것이 15개조, 전중하는 필법이 13개조 있으며, 제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필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강기훈의 필법은 제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것이 46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96개조로 후자가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 김기설이 쓴 필법과 비율이 상이한 것이 증명된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감정문건인 유언서의 'ㅓ'부분의 종필의 형태를 보면 첫째와 둘째장에 나오는 42개조 중에서 종필을 가압한 것이 32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10개조 이어서 자료의 김기설이 쓴 종필과 필법의 비율이 합치하며, 강기훈의 종필의 필법의 비율과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5) 'ㅕ'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ㅕ'의 각문자의 필법을 보면, ㉔에 18개조, ㉕에 5개조, ㉖에 2개조, ㉗에 4개조, ㉘에 10개조 등 합계 39개조이다. 이들 모두가 제1, 2획의 종선을 평행이 아니라 곡선적 필치로 안쪽으로 굽어서 내려고 제2획의 종필에서 제3, 4획을 연속필기(連續筆配)로서 'ㅕ', 'ㅕ'와 같이 쓰며, 종필을 제2획의 종선보다 우측(右外側)으로 돌출되도록 뺄어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기훈이 쓴 ㉓, ㉔의 'ㅕ'의 문자는 전부 121개조이다. 그 중에서 'ㅕ', 'ㅕ'와 같이 제1, 2획의 종선을 수직이 아니라 우하방(右下方)으로 직선적 필치의 사선으로 그어 내리며, 제3, 4획을 행서체의 속필로 쓰고, 종필을 제2획의 사선상(斜線上)에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형태이다. 또한 유례(類例)는 적지만 1987년 5월7일의 처음부분에서는 'ㅕ'와 같이 해서체로 제3, 4획을 분리하여 쓰는 필법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문건의 유언서를 보면, 첫째장에 9개조, 둘째장에 11개조가 있어 20개조 전부의 필법을 보면, 'ㅕ'과 같이 김기설이 쓴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게 나타나 있다.

결론

감정문건인 2종의 유언서의 필적은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감정자료인 김기설이 쓴 각종의 필적과 필법의 특색이 전적으로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감정주문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 끝 --



■ 서준식선생의 구속은 정치적 보복행위



서준식선생의 단식이 오늘(7월 27일 현재)로 18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서준식선생은 지난 6월 29일 명동성당농성끝내고 자진출두 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준식선생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고 강경대학생 장제의 및 고 김기철씨 장례식 참석 혐의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준식선생은 '법국민대책회의'의 어떤 책임있는 간부직도 맡지 않았으며, 동 회의가 주최한 어떤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연설한 적도 없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3차례에 걸쳐 기각되었을 정도로 사법당국 스스로에 의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가 자진출두를 천명한 바로 다음날 전격 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준식선생은 이른바 '유서대필사건'과 관련 진실의 규명과 강기훈씨의 인권보호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며, 진실의 규명을 위하여 언제든지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이러한 서준식선생의 행동이 검찰의 비위를 건드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검찰이 서준식선생 구속 직후 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에 앞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집시법 위반혐의로 공소유지가 불가능하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를 추가하여 조사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서준식선생의 구속이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강기훈씨 사건과 관련 그간의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서준식선생의 발을 묶음으로서 자신들의 조작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임을 반증하여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서준식선생의 구속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개정된 보안관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된 법률로 * 보안관찰대상자가 사회안전법 존재 당시보다 오히려 확대적용되었고 *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 참가가 금지되며 *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 보안관찰대상자 사이의 회합, 통신이 금지되어 있으며 * 3개월에 1회의 신고의무가 있어 행선지, 만난 사람과의 대화내용 등을 일일이 보고하게 되어있는 등 비인간성, 전근대성, 위헌성의 대표적인 악법이다. 다 알다시피 서준식선생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1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으며, 석방된 후에도 비인간적이고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의 폐지와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은 몸으로 거부하며 투쟁해왔던 것이다.

서준식선생은 이번의 구속이 강기훈씨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사실과 자신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이 앞으로 양심세력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본 강기훈 후원회는 헌정권의 서준식선생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구속이 한 양심적인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극악한 인권탄압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각 민주당계 및 인권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사랑하는 젊은 투사 강기훈씨에게

편집자주 : 이 편지글은 강기훈씨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일때 빈민권 관련으로 수배중인 서울민협위원장 김희선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끈은 자다가 너도 끈다고 하지만 많은 하늘의 낙서처럼 말이 강동지 경우를 두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져 듭니다.

지난 1개월 반동안 눈독의 거중스럽고 강고한, 그리고 강악한 그 뒤무맹랑한 조작극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동지터 가족들의 벼슬 꺾는 듯한 기운 이른 통통통 그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누군등 그것을 어우머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검역 공범이 생각하면 학수욕 순풍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치명적인 분노, 폭타는 적개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투쟁하시는 강동지의 상황을 이렇게 먼 방지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내 지금의 처지가 너무 처중스럽고 안타까워 몇차 글로라도 동지의 투쟁에 애정을 전하고저 합니다. 어리면 어런 나이인데 그 억울하고 기막힌 당혹스러운 상황을 의연하게 대응하며 싸워가는 모습은 저같은 사람에게는 크나큰 긍지터 거부심으로 다가옵니다.

게다 우리 양심과 지금의 대변자나 해도 지나침이 없으신 서 선생님께서 그일을 떠맡아 투쟁하시는 모습은 너무 현존적스러워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지들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는 것을 보며, 서로를 격인하고, 서로 격려하며, 고통스럽고 힘든 각이처럼 스스로 선택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어년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동 지 !

진실이랄 그 누구도 어떤것에 의해서도 결코 강추어 질 수 없다는... 걸러진 진실에 대한 평언적 승리는 수억만엔 인가사 가운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을 치러낸 이용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강기훈 동지 !

그 솔한 민주현충들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의 기억된 현신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현재 강동지가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은 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연원하는 7천만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할 세대의 고통이온 분노인듯 다시 함께 학인해 봅시다. 또한 시대의 양심과 비양심의 이 역사적인 투쟁의 현강 중심에 서있는 강동지의 현신을 이계껏 해오신 것처럼, 영랑스럽게 맞서 주시길 강히 부끄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1호

유서사건 기타자료



유서사건 기타자료

"유서사건 사건이냐?"
전세계 역사를 통털어 놓고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그 교착한 박살으로 면면권을 탄압하는 노정권의 역사적 범죄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밤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은 우리 조선 여성 특유의 한의 응집이었습니다.
이 땅 만중 어머니들의 원한과 분노는 이제 그 한의 응집이 내러락 내어 머지 않습니

다.
본신교사, 방조! 그 조직 박살 자체가 이미 노정권의 패륜적인 도덕적 상신으로, 존재 의미가 역사적으로 부러가 본현을 뿐 아니라, 강역에서 깊어질 역사에 이르기까지 저등이 이것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도록 스스로 복호하였습니다.

발바엔 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레스타인의 아들 예수의 생은 "진리가 너의 속 자유케 한다"는 그 한머리로 33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2천년의 역사속에 추억의 인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탕의 식전이 곧 투쟁이었다는 이 학언이 지친 우리들에게 재충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강기훈 동지! 아무리 암석한 처지가 되어도 이 불타는 적개심과 치명리는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고 긴장하면서, 상황의 리선으로 내자신을 묶어세우는 것이 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송합니다.

강동지! 흰눈 고통과 번뇌, 고된 가운데 긴 삶의 여정에서 오놈의 이 상황을 젊은 삶의 직적 박살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서없는 공룡 이해하시고, 낮은 투쟁 더욱 힘차게 해 내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동인연원 47년 6월 18일
의선 드림

진실은 승리한다 1호

자진출두에 즈음하여

편집자주 : 본래 편집자의 계획은 강기훈씨의 옥중편지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고도소당국의 우권발급거부로 현재 강기훈씨가 편지를 쓰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대신 강기훈씨가 자진출두에 앞서 남긴 성명' 등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합니다.

그간 검찰은 한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기 위하여 저를 자살방조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중 략 ... 제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 중 략 ... 저의 자진출두가 홍성은양의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은양은 최근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 억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인을 불법수사하고 한 달 이상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류하는 것은 사건을 조작하려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유예가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홍성은양은 즉각 자유로워져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은 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 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실은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리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설 것입니다.

잠시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저의 심정은 진실하기에 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사건,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드는 공권력에 맞서 제 양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공권력에 의해 진실과 양심이 대패의 포말처럼 문허버림으로써 우리사회가 거짓과 비양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무고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의해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검찰의 조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공정한 눈으로 지켜보아 주실것을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부릅뜬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991. 6. 24
명동성당에서 강기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근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CCA)의 필적감정에서 보여지듯이 고 김기철열사에 대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검찰과 공안당국의 최대의 조작극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기훈후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278-2483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 1동 강인빌딩 7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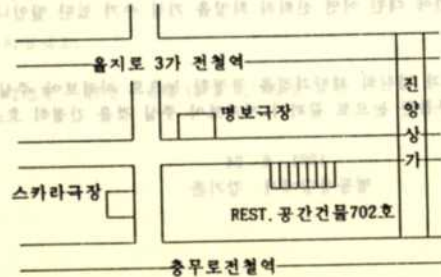
억울한 누명을 쓴 강기훈씨의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정성껏 보내주신다면 진실과 양심 승리의 그 날을 보다 빨리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3101-2046606
상업은행: 119-05-119332
국민은행: 003-01-0570-152
농협: 084-01-132153
• 예금주: 강기훈

*** 사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

준비위는 회원 여러분과 관심있는 분들이 항상 만날 수 있도록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나 좋은 의견 계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약도:



진실은 승리한다

會報試作紙 2호

발행처: 강기훈후원회준비위원회 / 발행일: 1991. 8. 26
주소: 서울시 중구 인현 1동 강인빌딩 702호 / 전화: 278-2483



진실은 승리한다

"이미 모든 사실은 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 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실은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설 것입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강기훈후원회준비위원회